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세종대왕이 보여준 소통의 리더십과 인재를 향한 신뢰가
한글 창제 등 독창적인 민족문화를 꽃피운 계기”

- 여주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류근식 소장 -



2018년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인 해이다.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업적을 후손에게 이어주고 있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류근식 소장' 을 서면 인터뷰로 만나 보았다. 세종 즉위 600주년을 맞아 조선 왕릉과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관람하면서 세종대왕의 남긴 업적과 철학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분 중 한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는 인물입니다.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이나 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대왕 어진

세종대왕은 한글창제를 비롯하여 학문, 과학, 음악,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학문방면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 창제와 농사직설, 용비어천가 등을 편찬하였고, 과학기술방면으로 젊은 과학자를 양성하여 혼천의 등 천문 관측기구와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격루 등을 만드셨습니다. 음악방면으로 국가 제례에 사용하는 아악을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선왕들의 업적을 기리는 정대업, 보태평 등 신악을 작곡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통치철학은 애민정신으로 따뜻한 인간애로부터 출발해 합리적인 국가운영, 균형 잡힌 인재등용, 포용과 조화, 그리고 화합의 리더십을 보였고 강요보다는 설득으로 백성들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신뢰의 정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세종대왕의 업적과 철학이 우리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온라인 정보통신 기술이 일선 산업 현장에 적용되며 일어나는 혁신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데, 그 핵심은 과거에 없던 가치의 창출이고 이를 위하여 경쟁이 아닌 개인 간 창조적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6세기 전 '경연'을 통하여 보여준 소통의 리더십과 인재를 향한 신뢰로, 한글을 창제하시어 독창적인 민족문화를 꽃피운 계기를 마련하셨고, 학문의 진흥 및 과학기술을 개발하시어 국가가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조선 세종 영릉(英陵)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릉(英陵)은 조선 제4대 세종(世宗, 1397~1450, 재위 1418~1450)과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의 능이며, 하나의 봉분아래 석실 2개를 붙여 왕과 왕비를 함께 안치한 조선왕릉 최초의 합장릉입니다. 영릉의 풍수에 대해서 자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469년(예종1)에 현재의 위치로 천장을 하였습니다.



▲ 세종대왕릉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능묘 형식과 위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릉의 종류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 왕족의 무덤은 묻히는 사람의 신분(階級)에 따라 능(陵)·원(園)·묘(墓)로 구분합니다.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원은 왕세자·왕세자비, 왕세손, 왕을 낳은 후궁의 무덤이며, 묘는 폐위된 왕, 대군·공주 등의 무덤을 말합니다.

조선왕릉은 또 봉분 조성 형태에 따라 단릉, 쌍릉, 삼연릉, 합장릉, 동원미강릉, 동원상하릉으로 나뉘집니다. '단릉'은 왕이나 왕비의 봉분을 별도로 조성한 단독의 형태를 말하며, 예로 건원릉(태조)이 있습니다. '쌍릉'은 한 언덕에 나란하게 왕과 왕비의 봉분을 마련한 형태를 말하며, 예로 현릉(태종·원경왕후)이 있습니다. '삼연릉'은 한 언덕에 왕과 왕비, 계비의 세 봉분을 나란하게 배치한 형태를 말하며, 예로 경릉(현종·효현왕후·효정왕후)이 있습니다. '합장릉'은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형태를 말하며, 예로 영릉(세종·소헌왕후)이 있습니다. '동원미강릉'은 하나의 정자각 뒤로 한 언덕의 다른 줄기에 별도의 봉분과 상설(능, 원, 묘 등)의 무덤에 설치한 여러 석물(石物)을 배치한 형태를 말하며, 예로 광릉(세조·정희왕후)이 있습니다. '동원상하릉'은 왕과 왕비의 능이 같은 언덕의 위아래에 걸쳐 조성한 형태를 말하며, 예로 영릉(효종·인선왕후)이 있습니다.

봉분 형태	왕릉 조성 예	사진
단릉	건원릉 (태조)	
쌍릉	현릉 (태종·원경왕후)	
삼연릉	경릉 (현종·효현왕후·효정왕후)	
합장릉	영릉 (세종·소헌왕후)	
동원미강릉	광릉 (세조·정희왕후)	
동원상하릉	영릉 (효종·인선왕후)	

지난 2017년 5월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이 개관되었는데요.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의 개관한 취지와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1970년대에 조성된 세종대왕릉 권역을 좀 더 원형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하고 세종대왕의 위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 전시되어 있는 대표적 유물과 문화재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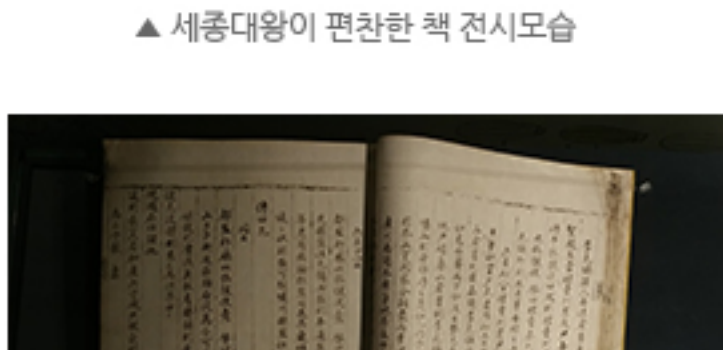
세종대왕과 관련해서는 농가집성을 비롯해서 6종류의 세종대왕 재위 시 편찬한 책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터치스크린을 통해 책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계인 앙부일구의 형태로 만든 '휴대용 앙부일구'를 볼 수 있습니다. 효종대왕과 관련해서는 산릉도감의궤, 천장도감의궤가 복제품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당시의 왕실 장례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 세종대왕이 편찬한 책 전시모습



▲ 휴대용 앙부일구



▲ 효종대왕산릉도감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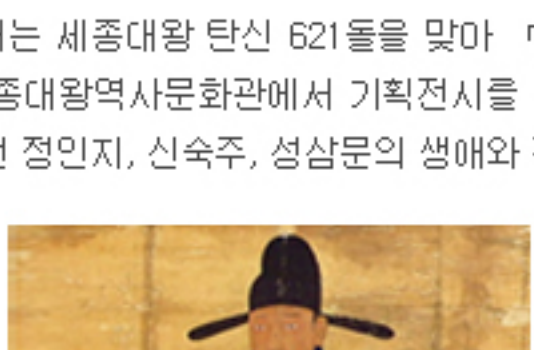
▲ 효종대왕천릉도감의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를 운영하면서 애로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리 등 어려운 점과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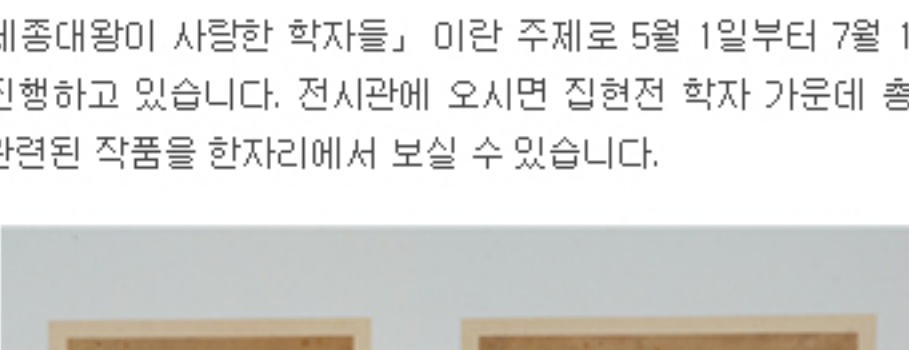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세종대왕릉을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칭송할 때 세종대왕릉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써 보람을 느낍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 매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사나 세종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 등 계획된 행사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세종대왕 탄신 621돌을 맞아 '세종대왕이 사랑한 학자들' 이란 주제로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 오시면 집현전 학자 가운데 총애를 받았던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의 생애와 관련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숙주 영정



▲ 성삼문 필경시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조선국왕의 즉위식>과 관련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즉위식에서 '면복'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고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또한 왕만이 맛을 수 있는 어자와 왕의 어좌병풍인 '일월오봉도'를 함께 전시하여 세종대왕이 즉위할 당시를 알 수 있게끔 의도하였습니다. 9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2014년~2019년까지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영릉(英陵, 세종·소헌왕후)과 영릉(寧陵, 효종·인선왕후)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2020년에 국민들에게 복원된 모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관람 안내

- 관람시간

2월 ~ 5월, 9월 ~ 10월		6월 ~ 8월		11월 ~ 1월	
매표시간	관람시간	매표시간	관람시간	매표시간	관람시간
09:00~17:00	09:00~18:00	09:00~17:30	09:00~18:30	09:00~16:30	09:00~17:30

- 관람요금 : 무료 관람(2018년 12월 31일까지)

※ 정기휴일 : 매주 월요일

| 우리말 보물찾기 |

우리말에 깃든 생물이야기

- 권오길 /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미리 말하지만 필자가 쓴 책 '우리말에 깃든 생물이야기'가 여태껏 6권이 출간되었고, 앞으로 3권이 더 출판될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이란 '속담(잠언)', '고사 성어(사자성어)', '관용구(관용어)'를 뜻하고, '생물이야기'란 속담이 품은 동식물을 세세히 설명함이다. 그리고 이들 '우리말' 구석구석에는 그 옛날의 역사·사회·인간상과 그들의 관찰·경험·지혜·삶의 옛자국까지 넉넉한 해학과 날카로운 재치로 오롯이 비유, 은유되고 있다.

일례로 '고사 성어(한자성어)'하나를 든다. 사마귀(버마재비)는 한자어로 당螂(螳螂)인데, 사마귀가 수레 바퀴를 막는다는 뜻인 '당螂거철(螳螂拒轍)'이 있다. 이는 제 분수나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힘센 상대이거나 되지 않을 일에 감히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빗댄 말이다.

춘추시대 제(齊)나라 장공(莊公)이 어느 날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던 중 웬 벌레 한 마리가 도끼 같은 앞다리를 휘두르며 수레를 쳐부술 듯 덤벼드는 것이 아닌가. 마부에게 그 벌레에 대해 묻자, 마부는 "저것은 사마귀라는 벌레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을 모르며, 제 힘은 생각하지도 않고 적을 가볍게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자 장공은 "이 벌레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천하에 용맹한 사나이가 될 것이다."라면서 수레를 돌려 피해 갔다고 한다.

다음은 감에 얽힌 속담이다. 내 고향 경남 산청은 감 곳이라 속절없이 며칠 때부터 감나무, 감과 어울려 살았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흥시(연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란 아무런 공도 들이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 바람을, "흥시(꽃감) 먹다가 이 빠진다."란 전혀 그렇게 될 리가 없음에도 엉뚱한 일이 벌어짐을, "익은 감도 떨어지고 선감도 떨어진다."란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사람은 자기 명에 따라 죽게 마련임을 비꼰 말이다. 이렇게 속담 바탕엔 권유, 체험, 빗댄 따위가 깔렸다 하겠다.



그런데 속담을 파고들라치면 놀랍게도 기발한 옛말(고어)나 순우리말(고유어)들을 참 많이 본다. "감나무 밑에 누워도 샷갓미사리를 대어라."란 말은 "절로 떨어지는 흥시를 얻어먹으려거든 미사리를 입에 대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의당 자기에게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게 애써야함을 비유한 말이다. 여기서 고유어인 미사리(접사리)란 우비샷갓이나 상제가 쓰던 방갓 안에 댄, 머리에 쓰는 둥근 테두리를 이른다.

익은 감을 깎아 말린, '호랑이보다 무서운 건시(꽃감)'속담이다. '꽃감꼬치에서 꽃감 빼 먹듯'이란 알뜰히 모아 둔 재산을 조금씩 털어 써 없앴을 풍자한 것이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란 앞일은 생각치도 않고 당장 좋은 것만 취함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꽃감을 많이 먹으면 꽃감의 타닌(tannin)이 대장 수분흡수를 도와 변비가 된다. 이렇게 속담에는 비유와 체험과학이 들어있다.

다음은 달걀 이야기다. '계란이나 달걀이나'란 관용구(관용어)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계란(鷄卵)은 한자어고, 달걀은 '닭의 알'이 준 고유어다. 모름지기 '계란'보다 '달걀'을 즐겨 쓰자구나. '국어사랑 나라사랑'이니 말이다.

그리고 '달걀(계란)에도 뼈가 있다.'란 한자성어인 '계란유골(鷄卵有骨)'에서 온 말로 늘 일이 잘 안 되던 사람이 모처럼 좋은 일을 만났건만, 그 일마저 잘 안됨을, '달걀로 바위치기'란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달걀로 치면 노른자다."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고양이 달걀 굴리듯'이란 무슨 일을 능란하고 재간 있게 함을, '술 취한 놈 달걀 팔듯'이란 일하는 솜씨가 거칠고 머지러움을, '조막손이 달걀 놓치듯'이란 물건이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떨어뜨림을 비아냥거린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턱없이 많은 달걀 속담을 죄다 쓰지 못했다. 이렇게 달걀처럼 인간과 가까운 것일수록 속담 가짓수가 종잡을 수 없이 많다.




다음은 '우리말(속담/관용어)과 관련 없는 허접스런 달걀이야기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란 문제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것을 이르는데, 사실 기독교창조설에선 닭이 먼저이고, 생물진화설은 달걀을 먼저로 친다.

그리고 '누란(累卵)의 위기(危機)'란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이 무거지기 쉽다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편을, '달걀 한 판의 나이'란 나이 서름임을 이른다. 또한 영어속담인 "병마리가 까이기 전에는 세지 마라(Do no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란 억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뜻으로, 품은 달걀이 모두 부화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말이다. 이렇듯 달걀이야기 하나만 해도 무궁무진하다.

끝으로 식물이야기 둘만 덧붙인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푸른색(제자)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스승)보다 더 푸르다.'란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한 성어다. 여기서 '쪽'이란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로 한자이름은 남(藍)이고, 잎은 짙은 청색인 인디고를 지니고 있어 그것으로 남빛물감(쪽물)을 만든다. 책에서는 쪽의 여러 이야기를 상세히 논한다.

또 떠돌이 인생을 '부평초인생(浮萍草人生)'라고 하는데, 사람이 산다는 것이 마치 부평초처럼 덧없고 보잘 것 없음을 일컫는다. 여기서 부평초는 '개구리밥'으로 개구리밥과의 여러해살이물풀로 수평-머구리밥이라 한다. 개구리밥은 무논이나 연못에 얼키설키, 바글바글 잔뜩 모여서 동동 떠 살기에 물꼬(논꼬)를 틔우는 날에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논길 따라 떠내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개구리밥에 견주었다.



우리는 정녕 보물 같은 우리글을 만들어주신 조상님들에게 감지덕지해야한다. 법정(法頂)스님은 '무소유'책에서, "혹시 내 죽은 뒤에 다시 돌아 올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우리 한글이 너무 예뻐서다."라는 투로 썼다. 평생 글을 먹고 사는 필자도 가슴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말, 우리글이 더없이 아름답고 예쁘다. 그러기에 마땅히 즐기차게 절차탁마(切磋琢磨)해야 할 것이다. 



| 권오길 |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서충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하고, 1981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2000년 강원도 문화상(학술상), 2003년 대한민국과학문화상, 2016년 동곡상(교육학술 부문) 등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꿈꾸는 달팽이』, 『인체기행』, 『손에 잡히는 과학교과서 동물』, 『괴짜 생물이야기』, 『우리말에 깃든 생물이야기』 등이 있다. 1994년부터 <강원일보>에 생물이야기를 비롯해 2009년부터 <교수신문>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 남녘말 북녘말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통해 본
남북 간 문화유산 분야 용어차이

- 박성진 /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남과 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분단 현실을 거치며 정치체제를 비롯한 사회구조와 일상의 대부분을 다른 모습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몇몇 단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말과 글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언어와는 달리 전문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학술분야에서는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로 인해 서로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문화유산 분야 역시 남과 북이 사용하는 용어가 상당히 다르다. 남측은 주로 한자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북측은 순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점은 남북 간 일반적인 언어 사용의 특징일 것이다. 남과 북의 문화유산 용어 사용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남측의 한자 중심 사용은 특유의 함축성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이 가능한 반면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반면 북측의 우리말 중심 사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표현 방식이지만 한자에 비해 단어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함축적이고 세밀한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마제석축(磨製石鏟)’은 ‘간돌화살촉’,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은 ‘돌무지덧널무덤’, ‘적색마연토기(赤色磨研土器)’는 ‘붉은간토기’, ‘전축분(塹築墳)’은 ‘벽돌무덤’, ‘패총(貝塚)’은 ‘조개무지’ 등으로 동일한 대상을 각각 한자와 순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유산 분야의 한자와 순우리말 표기는 남과 북, 서로가 그 뜻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미 남측 학계에서는 상당기간 이전부터 한자와 순우리말 표기를 학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편리하게 섞어 사용하고 있으며, 북측의 경우에도 ‘조선고고연구’ 등 정기 학술간행물에서 순우리말로 풀어내기 어려운 단어의 경우 한자 용어를 우리글로 표기하고 있다.

▲ 고려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전경¹⁾

그렇다면 실제 남과 북의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들이 만나 서로의 학술적 견해를 나누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전혀 문제없음’이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남측의 ‘자기편(磁器片)’을 북측은 ‘자기 조각’으로 남측의 ‘시굴갱(試掘坑)’ 또는 ‘Trench’를 북측은 ‘시굴홈’으로 표현하는 정도의 차이만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면 곧바로 이해 못할 표현들도 있을 수 있고 남북 각각의 학술적 관점이나 집중도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발전한 분야들의 경우 상대측에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남과 북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므로 매우 간단한 설명만으로 쉽게 소통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다른 개념과 관점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서로의 학술적 역량을 키워주기도 한다.




▲ 개성 만월대 제7차 남북공동발굴조사 현장 참관 전경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현장에서 경험한 남북 간 의사소통의 문제는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보다 남측 사투리를 북측이 잘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더 컸었던 것 같다. 특히 몇몇 남측 조사단원들의 ‘센’ 경상도 사투리는 북측 조사단원들에게 정말 알아듣기 어려웠던 듯 했다. 남측 조사단원 필자도 가끔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 북측 조사단은 어땠을까 짐작이 간다. 경상도 사투리 특유의 빠르고 강한 억양에 발굴조사 전문용어까지 섞어서 이야기하면 남측 사람들도 전공자들이 아니면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북측과의 대화에서는 남측의 문제였던 억양이나 발음 보다는 사용하는 단어의 생소함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듯하다. 남측에서는 특정 안건에 대해 ‘이야기’ 하자라고 표현하는 반면, 북측에서는 ‘토론’하자라고 표현하는 등 소통에 문제는 없었으나 남측 사람들에게 생소한 표현이 다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남북이 각자 살아온 세월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차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차이가 없음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 개성 만월대 출토된 금속활자, 막새기와, 벽전(壁塼)²⁾

북측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남북 간의 언어차이는 학술적인 부분보다 일상용어에서 더 크게 다가왔다. 남측의 일상화된 외래어 사용은 조사의 여러 부분에서 크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특히 대부분 외래어로 된 조사 물품 목록은 북측 세관원들에게 상당한 골칫거리여서 다음번부터는 순우리말로 된 목록으로 가져오라는 편지를 듣기도 했으며, 발굴조사 초반에는 포클레인 등 남측에서는 일상화된 고유명사를 설명할 순우리말을 한참 동안 생각하기도 했다. 남측만큼은 아니었지만 북측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남측에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고민했음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포클레인’은 ‘굴삭기’로 남북이 통일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식음료류 공산품들의 순우리말 제품명이었다. 아마도 남측의 경우 최근 순우리말 제품명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비슷한 대부분 상품들의 명칭이 외국어, 외래어 또는 비슷한 느낌의 우리말이기 때문에 더욱 북측의 이러한 특징이 도드라져 보였다. 필자를 비롯한 남측 조사단원들은 북측 상품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남측식으로 바꿔보기도 했다. ‘소젓크림경향’은 ‘우유크림빵’, ‘소젓맛 에스키모’는 ‘우유맛 아이스크림’, ‘탄산단물’은 ‘사이다’ 등 맛도 비슷하고 한눈에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남과 북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글만을 고집하는 것이 지금의 남측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북측의 상품명을 보면서 우리글 사용에 대한 북측의 일관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함께 사회문화 분야 남북교류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사업이 시작된 후 많은 일들이 있었고, 10년의 시간이 지나 강산은 많이 변했지만 유적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덥고 추운 날에도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북측 조사단과 송악산 자락에서 편하게 토론하고 함께 땀 흘리며 조사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1), 2) 사진 출처: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제공

| 박성진 |

동아대학교에서 고고미술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 분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에 7차례 참여하였다.

남녘말 북녘말 어떤 하루를 기억하는 법 보기 >

| 남녘말 북녘말 |

어떤 하루를 기억하는 법

- 홍서현 / 겨레말큰사전 연구원

나무에 돌아난 푸른 잎사귀처럼 기온차와 생동감 넘치는 계절의 여왕 봄, 그리고 5월입니다. 지난 4월 27일, 11년 만에 남북 두 정상은 손을 맞잡은 ‘한반도의 봄’은 더욱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5월은 우리에게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함께 스승의 날,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까지 유독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하지요. 새로 5월의 달력을 펼쳐며 문득 남과 북의 5월이 궁금해졌습니다.

달력	양음력변환	날짜계산	간격일계산	만나이계산
2018.05				
일	월	화	수	목
29	30	1 근로자의날	2	3
6	7 대정 유일	8 어버이날	9	10 유중자의날
13	14	15 스승의날	16	17
20	21 세계인의날	22 부부의날	23	24
27	28	29	30	31 비오의날

[사진] 남한/북한 5월 달력 비교¹⁾

‘가정의 달’로 불릴 만큼 기념일이 많은 우리와 달리 북한은 ‘오일절(5.1절, 로동절)’ 정도가 5월에 들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언어와 생활이 달라진 만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어떤 날’들도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과 북의 민속 명절은 대체로 분단 이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날, 같은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남	북	설명
설	설(명절)	
신정/양력설	양력설/신정	
구정/음력설	음력설/구정	
(정월) 대보름		남 공휴일 마님 북 공휴일
한식		
단오/수릿날	수리날/단오	
추석/한가위		

<남과 북의 민속 명절>²⁾

겨레말 말뭉치에서 민속 명절과 관련된 문장을 찾아보면 그 날을 기념하고 즐기는 방식도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기로 청명이 되면 그 다음날이 한식인데 원래 **한식날에는**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고 찬밥을 먹는 풍속이 있었다. <3월과 4월의 민속>

대보름날 이른아침에 날밤, 호두, 잣, 은행 같은 굳은나무열매와 무우를 먹었으며 약밥도 특별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정월대보름풍습>

바줄당기기는 대체로 **정월대보름**에 진행하였으며 지방에 따라 **5월 수리날**, **7월 백종** 또는 **8월 한가위**에 하는 곳도 있었다. <바줄당기기>

하지만 분단 이후의 남과 북의 기념일은 그 양상이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우선, 북은 명절의 개념이 우리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남에서 ‘명절’은 주로 민속 명절을 가리키지만, 북에서는 국가적 명절과 여러 기념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마지막 **명절인 헌법절**을 하루 앞두고 나는 주유치원에 다니는 딸애를 데리러 향광유치원으로 갔다. <고마움에 대한 생각>

남	북	설명
삼일절	삼일 인민봉기의 날	북 국경일 마님
제헌절	헌법절	남 7/17 공휴일 마님 북 12/27 공휴일
광복절	조국해방의 날/해방기념일	
개천절	개천절/개천일	북 국경일 마님
스승의 날	교육절	남 5/15 북 9/5
어린이날	국제아동절/육일절	남 5/5 공휴일 북 6/1 공휴일 마님

<남과 북의 주요 기념일>³⁾

나무를 아껴 가꾸고 많이 심기를 권장하는 4월 5일 ‘식목일(植木日)’은 북에서는 3월 2일을 ‘식수절(植樹節)’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요. 1971년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4월 6일이었으나 좀 더 많은 나무를 일찍부터 심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3월로 당겨 기념하고 있습니다. 겨레말 말뭉치에서는 북의 ‘식수절’ 풍경을 다음과 같이 엿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가 지나가는 산릉선에서는 **식수절**을 맞으며 군인들이 나무를 심고있었다. <삼봉풍경>

나무심기는 봄가을에 많이 하였는데 주로는 **식수절**을 계기로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였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마음으로>

한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날인 ‘어버이날’은, 우리는 1956년 ‘어머니날’로 처음 기념하던 것을 1973년 지금과 같이 ‘어버이날’로 변경하여 5월 8일에 기념하고 있는데요. 북에서는 2012년부터 ‘어머니날’로 부르고 11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의 명칭만으로 보기에 기념하는 의미가 비슷할 것 같지만 북의 ‘어머니날’은 효의 전통적 의미를 고취하기보다 북한 체제 하에서 당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회주의적 여성의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북의 기념일을 언급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한글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치르는 자리에서 정해진 ‘가갸날’은, 지금은 남에서 10월 9일 훈민정음 반포일(세종 28년 음력 9월 10일), 북에서 1월 15일 훈민정음 창제일(세종 25년 12월 30일)로 추정되는 즈음인 1월 15일로 다르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든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우리 문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만은 한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로 찬반양론이 엇갈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정을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그 경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올해는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기념일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쟁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념일은 달력 속 검은 숫자들 사이에 끼인 빨간 날처럼 고단한 일상에 더러 찾아오는 공식적인 휴식이거나 때로는 나서서 챙겨야 하는 부담스러운 날과 같은 의미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기념일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신의 척도이고,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후세대의 평가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날들 가운데 어떤 하루에, ‘그 날’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려는 마음을 담은 것이지요.

통일 이후의 기념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단 이전에 함께 누리던 전통과 그 이후 달라진 역사와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함께 기념해야 할까요? 설불리 예측하기도 가능하기도 어렵지만 적어도 ‘통일의 날’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 초에 새로 남긴 달력에서 기념일과 공휴일을 찾아보는 마음처럼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1) 한겨레(2017.12.27.), [포토뉴스] 북한의 2018년 달력

2,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17),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생활용어」, 한국문화사

4) 독일에서는 통일조약규정에 의해 1990년 10월 3일을 통일기념일(독일 통일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남녘말 북녘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통해 본
남북간 문화유산 분야 용어차이 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밀월여행(蜜月旅行)과 소면(素麵)

- 권혜진 / 겨레말큰사전 연구원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용례를 남과 북 및 재외동포들의 문학작품 등으로 구축해 놓은 용례검색자료에서 찾아 되도록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올림말의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인용례를 찾아서 제시하고자 집필자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용례 검색을 하다보면 기존 국어사전의 올림말 뜻풀이가 언중들의 실제 쓰임을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언중들의 잘못된 이해나 착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될 때, 집필자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된다. 밀월여행(蜜月旅行)과 소면(素麵)이 이러한 고민을 하게 한 올림말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오스타와 오스타가 오늘 해외로 밀월여행을 떠나…”와 같은 기사를 접할 때가 있다. 이 가십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 둘이 사귀는 거였어?”라며 수군거리기는 하지만, “둘이 결혼하고 여행을 가나봐.”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소면은 슈퍼마켓의 면류 진열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품이며, 식당의 차림표에 적힌 ‘골뱅이소면무침’은 가는 면을 삶아서 골뱅이 무침에 곁들인 먹을거리이다. 그런데 ‘밀월여행’과 ‘소면’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경우들에 딱 들어맞는 뜻풀이가 없어서 당황할 때가 있다.

기존의 국어사전들에 제시된 ‘밀월여행’과 ‘소면’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올림말	표준국어대사전 웹	조선말대사전 증보
밀월여행#밀월여행	밀월여행(蜜月旅行) 「명사」 =신혼여행.	밀월여행(蜜月旅行) [명] 《신혼여행》을 달리 이르는 말.
소면	소면 ² [소 : 면] (素麵) 「명사」 고기불이를 넣지 않은 국수.	소면 ¹ (素麵) [명] 고기불이를 넣지 않은 국수.

먼저 ‘밀월여행’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 국어사전들에서 밀월여행은 신혼여행과 같은 말로, ‘결혼을 마친 신혼부부가 같이 가는 여행’으로 풀이되고 있다. ‘밀월(蜜月)’은 ‘허니문(honeymoon)’을 의역(義譯)한 것이다. 이 말은 본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신혼부부에게 결혼 후 한 달 동안 꿀로 만든 술을 마시게 했던 결혼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어의 근원을 모르는 일반 언중들에게 ‘밀월여행’은 ‘달콤한 꿀(蜜)’이 아닌 ‘비밀(秘密)’의 밀(密)일 것이라고 추측되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뜻으로 쓰인 용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몇 달 전에 대현이 애 기사 난 거 알아? 가수 이지은이랑 발리 {밀월여행} 갔다. 뭐 이런 추측성 기사 말이야. 《김태희 외: 소리 하라》
- ▶ 아버지가 서점의 거래처 여자와 {밀월여행을} 떠났다가 들켰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죽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월: 여덟 번째 방》
- ▶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밀월여행} 하고 있는 것 알면 기절하실 거야. 《한승원: 항항포포》

아무리 살펴보아도 용례 속의 여행이 결혼한 남녀, 즉 신혼부부가 떠나는 여행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행의 주체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로, 여행의 성격은 ‘공개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결혼의 여부와 관련이 없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될 여지가 있다.¹⁾ 이러한 점과 실제 언중들의 쓰임을 고려한다면 ‘밀월여행’의 뜻풀이는 수정되는 것이 좋겠다. 아래와 같이 뜻풀이를 수정해 보았다.

밀월여행#밀월여행 [밀월여행] (蜜月旅行) [명]

- ① =신혼여행#신혼여행. | 육촌누이동생이 화축을 밝히고 {밀월여행을} 온다. 《최현식: 홍상》
②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몰래 함께 가는 여행. | 사랑에 빠진 그들은 둘만의 {밀월여행을} 떠났다.

다음으로 ‘소면’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 국어사전의 ‘소면’은 만드는 방법에 따른 요리로서의 뜻풀이만 있다. 즉, 양념을 가하지 않은 국수, 혹은 고기양념을 넣지 않은 간단한 채소류 정도를 넣은 국수를 가리킨다. 올림말 ‘소(素)’는 ‘고기와 생선 등을 넣지 않고 나물 등으로만 만든 음식’을 뜻하므로, 이 한자에 ‘면(麵)’이 결합한 것이 소면의 기본 뜻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의 근원을 모르는 일반 언중들에게 ‘소면’은 ‘썬 소(素)’가 아닌 중면(中麵)보다는²⁾ 가늘고 세면(細麵)보다는 굵은 면을 나타내는 ‘작을 소(小)’로 추측되어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언중들에게 ‘소면’은 면의 굵기나 규격에 따라 나눈 면의 종류 중의 하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크기에 따라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으로 나눌 때 대(大), 중(中), 소(小)를 쓰는데, 여기에 면(麵)이 결합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 언중들의 착각이 반영된 말이다. 기존 국어사전의 뜻풀이와는 다른 뜻으로 보이는 ‘소면’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그 냄새는 기계로 뽑아 말린 {소면이} 삶아지면서 풍기는 냄새와는 또 다릅니다. 《김숨: 국수》
- ▶ 뻘뻘은 … 단골식당에 들어가 설렁탕에 {소면들} 듬뿍 넣어달라고 주문하는 것 같았다. 《박형서: 새벽의 나라》
- ▶ 아버지가 골뱅이무침의 {소면들} 젓가락으로 툄들 말았다. 《윤성희: 구경꾼들》
- ▶ 퇴근길 마트에 틀러 {소면과} 갖가지 채소를 샀다. 《김희진: 옷의 시간들》

역시나 실제 쓰임에 딱 들어맞는 뜻풀이가 기존 국어사전에는 없다. 그렇다면 언중들이 쓰고 있는 ‘소면’의 뜻은 단순히 잘못 쓴 말인가?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쓰임 같지는 않다. ‘소면’을 제면방식에 따른 국수의 한 종류로,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려서 막대기에 면을 감아 당긴 후 가늘게 만드는 국수로 보기도 한다.³⁾ 이러한 점과 실제적인 용례들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뜻풀이를 수정해 보았다.

소면 [소 : 면] (素麵) [명]

- ① 고기불이나 양념 등을 넣지 않은 국수.
② 밀가루로 가늘게 만든 국수. || 밀치 국물에 {소면들} 말아 먹다. | 나는 앞치마를 찾아 입고 물을 끓이고 {소면들} 삶아 소쿠리에 받쳤다. 《조경란: 우리는 만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 국어사전의 ‘밀월여행’과 ‘소면’은 언중들 사이에서 실제로 쓰이는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뜻풀이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기존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다른 이러한 의미는 원어에 대한 언중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잘못된 말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미와 쓰임이 이미 언중들 사이에 꽤 자리를 잡았다는 점, 그리고 기존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어사전은 언중들에게 바른 언어생활의 길잡이로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실제적인 쓰임과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국어사전 편찬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 이 글은 《겨레말큰사전》의 공식 입장이 아닌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1) 올림말 ‘밀월(蜜月)’은 경제적, 정치적 집단 사이에서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라는 뜻갈래도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밀월여행’의 주체를 재고할 만하다.
- 2) ‘중면(中麵)’은 기존 사전들에는 미등재된 올림말이다. 이에 대한 검토도 추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3) 위키백과, 두산백과에서는 국수를 제면방식(면제조법에 따른 분류)에 따라 남면, 압면, 절면, 소면 등으로 나누고 있다. 소면(素麵)은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려서 막대기에 면을 감아 당긴 후 가늘게 만드는 국수이다. 그리고 국수 반죽을 양쪽에서 당기고 늘려 만든 남면(拉麵), 국수 반죽을 구멍이 뚫린 틀에 넣고 밀어 굽는 물에 넣어 끓여 만든 압면(押麵), 밀대로 밀어 얇게 만든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든 절면(切麵)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겨레말 소식 |

편찬 사업회 신임이사장에 염무웅 교수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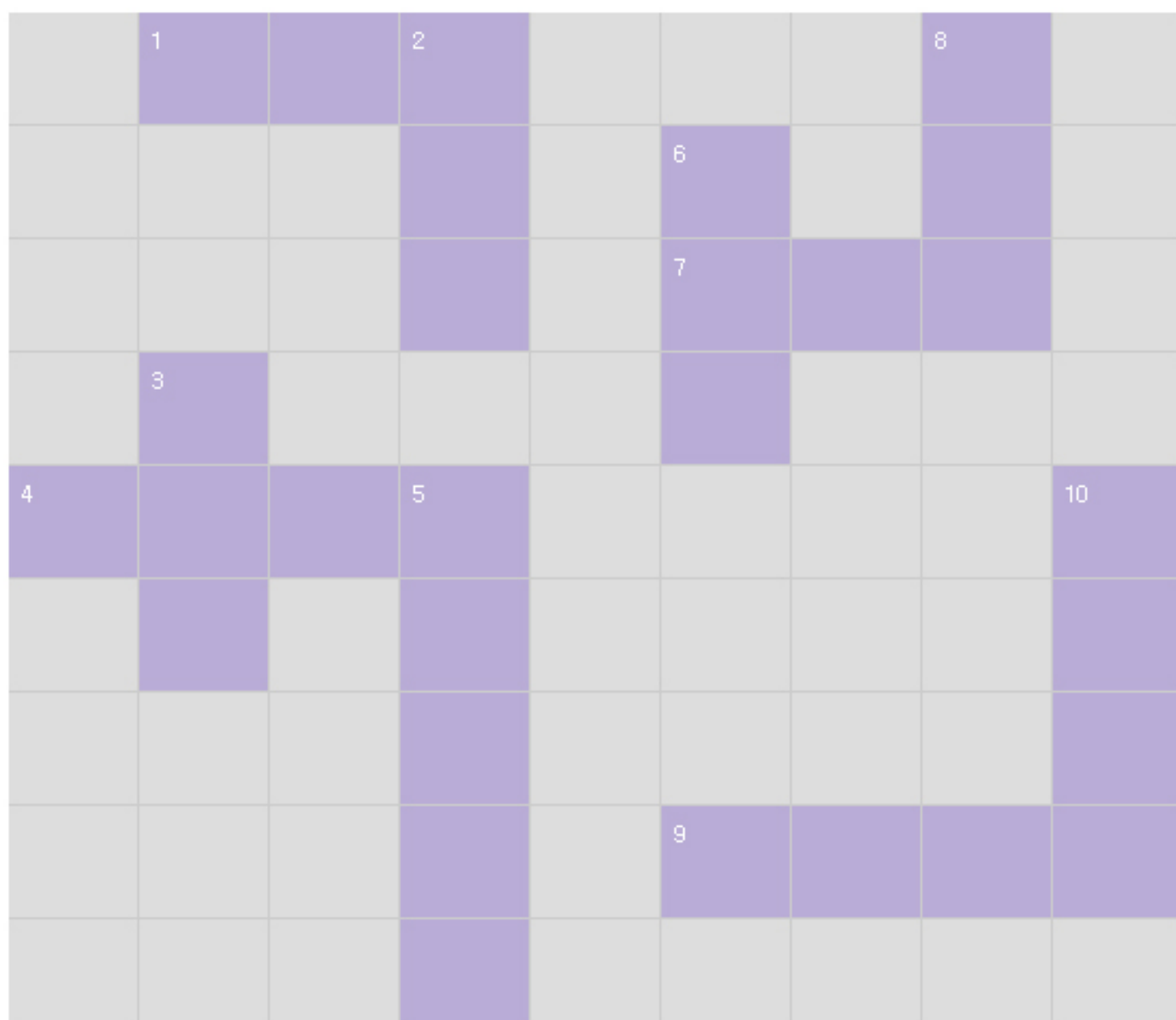
지난 5월 1일자로 편찬 사업회 신임 이사장에 염무웅(본명 염홍경) 영남대 명예교수가 취임하였다.

염무웅 신임 이사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평론가이자 영남대 명예교수로 (사)창비학당 이사장 등 문학계, 출판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남북 민간교류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향후 남북 공동사업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겨레말 낱말 풀이 |



- ① “부엌이나 조리칸에서 그릇이나 식료품을 물에 씻는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대.”를 뜻하는 북녘말. 동의어는 개수대.
예) 언제 동자질(부엌일)한 뒤끝인지 ○○○ 안에는 가시지 않은 어지러운 음식찌꺼들이 붙은 사발, 접시 몇 개가 쌓여있다. 《개이지 않는 하늘》
- ② “그 쪽시로.”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미쳐.
예) 부고를 받자 ○○○ 상가에 가다.
- ③ 북에서 ‘양복카라’를 다듬은 말로, “맞섬양복의 목깃에 대는 좁고 긴 천.”을 뜻한다. ○달개. 동의어는 깃발미①.
예) 곤색양복저고리의 옷깃에서는 하얀 ○○○가장자리가 눈처럼 빛났다. 《거룩한 자욱》
- ④ “통신이나 짐, 상품 등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송달해줌으로써 편의를 돌보는 봉사.”를 뜻하는 북녘말. 주문 ○○○○.
- ⑤ 사분음표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음악》 용근소리표(온음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진 소리표.”를 뜻한다. ○○소리표.
- ⑥ 토마토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마○.
예) 홍금은 그중 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 한 알을 골라들고 은빛 칼로 네쪽으로 만들더니 그우에 눈 같은 사탕가루를 듬뿍 뿌렸다. 《그들이 가는 길》
- ⑦ ‘낮여름’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마가울과 ○○○.
예) 밤으로야 구들 밑으로 냉기까지 느껴질 듯하지만, 낮으로는 달짝만 해도 빠질빠질 땀방울이 솟는 여름도 인지라 … 《인멸》
- ⑧ ‘주름살’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주름. 동의어는 주름살, 주름발.
예) 이미 ○○○이 제법 굵다랗게 자리잡은 눈가에 한결 더 뚜렷이 주름살을 살려 기쁜 웃음을 풍기며 마님은 적이 상냥한 목소리로… 《전말》
- ⑨ ‘에너지’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로 “《물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을 뜻한다.
예) 일정량의 물이 비등하면 육중한 기차를 끌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행복어사전》
- ⑩ ‘씩어쓰기’의 북쪽 표기. “글을 쉽게 보게 하기 위하여 문장 안에 있는 단어나 이와 등가적인 것을 씩여서 쓰는 것 또는 그에 대한 규범.”을 뜻한다.
예) 다음으로 맞춤법, ○○○○, 문장부호법과 같은 서사규범을 잘 가르쳐주어 학생들이 글을 규범에 맞게, 석갈리는 일이 없이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말 문법의 기초를 닦아주자면》

정답확인 >

